

역사 인식에 근거한 주제 해석

Interpretation of Themes in Historical Cognition

정의용/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Jeong Eui-Yong

3월 언젠가 「건축사」지 편집팀으로부터 건축가 김무권의 계명문화대학 예술관 및 복지관에 대한 평론을 요청받았다. 그 순간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아직 스스로의 건축 관도 정립하지 못한 사람이 감히 타인의 작품을 논할 수 있을지, 그리고 20년 이상의 세월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입장에서...

한순간 망설여졌지만 나는 “그의 건축 삶을 가
이에서 지켜본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추천하였다는 생각
이 들어” 우선 요청을 받아들일게 되었다. 요청을 받아들인 후
3주 동안 한 문장도 작성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주변의 전
문지에서 평론의 체계와 경향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다양한
평론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건축의 발전을 위한 순수한 “평
론”과 평론가 본인의 주관적 입장을 내세운 또는 위대한 건축
가 입장을 대변하는 “선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평론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평론
은 체계적으로 작품을 이해하려는 시도으로써 사실을 찾기 위한
한 형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일 때 평론은 폭 넓
고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또한 독자를
위해 교육적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
나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평론의 이러한 역할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평론이 다른 작가를 공격하고, 어떤
관점이나 관행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평론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부정적 측면의 평론은 수사학적인 궤변, 비본
질적 또는 상대주의적인 기준의 사용 그리고 권위주의 등의 특
징을 나타내고 있다. 대중성, 아방가르드(Avantgarde) 국기주
의 혹은 국제주의 양식과 같은 기준이 비본질적이라 할 수 있다.

비본질적 비평의 위험들은 공공연한 권위주의
와 규범적일 때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진보라는 기치아래
활동하고, 의심스러운 현대적 관점에 종속되어진 것으로 나타
날 때 그 사실을 알아내고 대항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
나 실제에 있어 그것은 옛 것을 대체한 새로운 법칙의 경향을



납득시키려 할 뿐이다. 놀랍게도 마스(Marx)는 “미래를 위한
프로그램을 세우는 사람은 반동분자”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과거로부터 유래된 법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
므로 근원을 배제해야만 한다는 논리다. 이러한 의식적이거나 무
의식적인 궤변을 통한 평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어진다.

본 평론의 성격은 원칙적이고 조사적인 방법을
시도해 보려 한다.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근거로 작
품의 특징들과 구성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 작품의 사회/문화적, 경제/기술적, 환경/형식적
주제들과 이러한 주제들이 서로에 보완·전개되고, 또는 선택적
으로 모순·약화되는 상호작용과 방법들에 대해 밝힐 것이다.

사회 / 문화적 주제의 해석

작품의 주제가 설정된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
문화적 측면에서는 대학의 성장과정에 내재된 지역성과 역사성
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교육제도과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대학의 주체인 교수와 학생들의 캠퍼스
생활과 캠퍼스를 관리하는 운영자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해 형성된 독특한 대학의 정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것이다.

대구는 지리적 여건의 차이, 경제·정치적 측
면의 열세, 그리고 시민의 보수적 성향 등으로 인하여 타 도시
에 비해 늦은 1900년경이 되어서야 서구의 건축양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종교를 포교하기 위한 선교단체(천주교,
기독교)에 의한 종교시설과 선교시설(주거, 병원, 학교) 등이
건립되어졌다. 이전에 일본인에 의해 건립된 공공상업건축물
과 더불어 서구의 근대건축물은 대구지역 건축양식의 원형
(Prototype)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미국 북장로교에서는 경북을 선교지역으
로 설정하고 1893년 베르드(W. M. Baird) 선교사가 대구를 방
문하여 활동을 시작했으며, 1897년 아담스(J. E. Adams) 선교
사가 부임하여 최초의 기독교회인 제일교회를 건립하였다.

1898년 대구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현 동산병원)을 세워 의료사업에 착수하였고, 1899년 동산동의 야산을 구입 선교사 주택을 세워 이를 중심으로 종교, 의료, 교육사업을 전개하였다.

1955년에 이르러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창학이념아래 학교법인 계명기독교대학(현 계명대학교)이 대명동의 나즈막한 산아에 교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미국 등 북부의 전형적인 캠퍼스 계획을 참조하여 자연 친화적인 토지이용과 도로체계 그리고 건물과 외부공간이 적절하게 배분된 조화롭고 아름다운 캠퍼스를 조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건립된 건축양식은 18세기에 미국에 전래된 영국의 조지안 양식(Geogian Style; 붉은 벽돌과 석재를 주재료로 사용, 파사드의 대칭적 구성, 주출입구 상부의 페디먼트 장식, 이오닉 기둥과 코니스 장식 등) 특징을 바탕으로 크리스토퍼 렌(Christopher Wren)과 잉그로 요네스(Ingro Johnes)의 작품에서 유래되었다.

1962년 2월에 여자 초급대학(가정과, 보육과)이 대명동 캠퍼스 내에 병설되었다. 이후 대학은 고도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분야중 특히 디자인 계열을 중점 육성한 대학의 특성화를 시도하여 현재의 “계명문화대학”(캠퍼스 인구를 개략적으로 산출하면 교수 1백50명, 5계열 20개학과와 중간 3천5백명, 아간 2천명의 학생과 교육연구지원에 필요한 직원 80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지속적인 성장은 교육제도의 개편, 교육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교지와 시설의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대명동 캠퍼스는 대구의 중심지역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주변 교지의 확보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대학의 성장을 위해 이전을 계획하게 되었지만 학내의 반대가 심각했다. 반대이유는 실무능력이 뛰어난 디자인 계열의 교수를 확보하고 있는 이 대학의 특성상 캠퍼스가 시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산학협동과 교류가 용이하며, 실질적인 교육과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전통이 학생들의 캠퍼스 생활에 영향을 끼쳐 현실감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게 된 요인이라는 주장이었다.

건축가의 역할은 운영자와 사용자간에 제기된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모순과 대립을 중재하고, 해결방안을 끊임없는 토의를 통해 유도해내는 것이다. 작가는 이 주제에 대한 해석을 통해 건축양식에 있어 역사인식을 통한 재해석과 인간 척도(Human Scale)가 적용된 캠퍼스 이미지 구현,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캠퍼스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제공 등의 설계목표를 설정한 것 같다.

경제 / 기술적 주제의 해석

기술적 측면의 주된 요소는 재료, 건물 시스템(기계, 전기, 전자), 구법(토목, 건축)으로 구분할 수 있고, 경제적 측면은 재정, 유지관리, 에너지 등을 고려한다.

현대건축을 대변하는 슬로건으로 “형태는 재정으로 결정된다(Form Follows Finance)”를 들 수 있다. 이 사상은 건축가에게는 의사결정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계명문화대학의 복지관, 예술관, 강의동의 평균 공사비는 교지 토목비와 조경비 기타 부대공사를 포함해서 건물평당 2백20만원(순수건축비 1백70만원)으로 시공되었다고 한다. 제한된 공사비내에 요구되어진 설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건축가는 공사별 재정을 분배하고, 그 한계내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재정의 분배를 살펴보면 대지의 평균 높이차 20m를 극복하고 캠퍼스 인프라(Infra-structure)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토지이용과 도로체계의 수렴 그리고 건축면적과 주변의 외부공간 확보를 위한 대지의 정지작업에 있어 최소의 공사비를 사용한 흔적을 볼 수 있다. 대학이 요구하는 양식의 현대적 구현과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한 내·외장 마감재로 대구 주변의 양질의 흙으로 생산된 다양한 색의 벽돌을 선택하고 있다.

빌딩시스템에 있어 건물별 에너지절약과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복지관의 경우 실별 팩키지(냉/난방)형을 도입하고 각 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기용 샤프트를 지붕으로 돌출시키고 있다. 차후 공사로 심야전기를 이용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여 지하에 축열시설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예술관은 교수연구실에만 중앙집중에 의한 라디에타 방식을 도입하고, 강의실과 실험실은 제외되어 있다. 교수연구실과 실험실에는 랜(Lan) 설치가 되어있는 정도다.

건축구조는 복지관의 경우 8mx7.2m R.C의 경제적 모듈을 채택하였으며, 예술관에서는 용도별(교수연구실 7.2mx3.6m, 강의실 9mx3.6m, 실험실 11.4~10.8mx3.6m)로 대학 시설에 전형적으로 사용되어온 모듈을 사용하여 공사비 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대지의 높이 차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지하의 채광과 환기의 목적으로 적재적소에 선큰 가든의 확보와 창의 패턴의 경우 환기가 원활한 양측 슬라이딩을 사용하고 있다. 이상 조사한 바와 같이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기술의 도입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건축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환경 / 형식적 주제의 해석

환경적 관점에서는 지역 배경과 성향에 따른 맥락(Context)과 대지 성격의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형식적 관점에서는 의미가 부여된 공간의 설정과 구성원리, 캠퍼스 이미지를 표현한 물리적 시설(건축물, 조경, 사인과 심볼) 등의 양식구현에 사용된 형태구성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성서 캠퍼스는 대구를 동서로 횡단하는 중심도로인 대서로를 통해 도심에서 10km떨어져 달성군 다사면

과 접하는 외곽지역으로 1991년 대구시는 서쪽의 관문인 이 지역을 생산 및 연구를 위한 첨단과학·산업 연구단지 지구로 설정하였다.

배후 시설의 확보를 위해 캠퍼스 동편에 성서에서 서재로 연결되는 50m폭의 4차 순환선을 개통하고, 도로 동측에는 택지개발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인구 12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캠퍼스는 연구·과학 단지와 배후 단지의 중심에 위치하여 산학 협동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문화시설을 제공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캠퍼스 지형은 동측의 주 접근로 50m에 접해 600m(남·북간)에 접해 있고, 도로에서 건축가능 지역까지 200m의 장방향이며, 평균 높이 차는 남북간 20m, 동서간 10m이다.

캠퍼스 조성에 있어 제반 조건을 감안하여 남북간으로 대학지원시설을 중심에 두고 양편에 교육시설을 둔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그리고 동서간에는 도로의 소음, 지역 사회와 연계성을 고려한 차폐지역의 설정과 레벨의 극복을 위해 두 영역으로 구분한 토지이용을 하고 있다. 캠퍼스 교문은 도로의 접근축과 산세의 지형축, 경사도 감안,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대지 남측 1/3지점에 배치되어 있다.

1994년 7월에 작가가 제출한 캠퍼스 공간구성에서는 교문과 대학의 상징인 도서관을 동서간 중심축으로 하여 진입공간에서 목적공간 간에 다양한 공간을 설정하여 캠퍼스의 독특한 이미지 연출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대학의 사정으로 교문에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1차로 강의동을 우선 시공하게 되어 전체적 이미지의 변형을 초래하게 되었다. 2차 공사로 주 진입로의 남측 지역에 복지관과 예술관 블록(Block)을 조성하면서 작가가 초기에 설정한 공간개념을 도입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맥락(Context)에 따른 캠퍼스 가로공간의 구성과 도로로부터의 소음을 차폐하기 위해 진입도로의 가로변에 배치한 복지관은 주 계단실과 출입구를 중심 매스(Mass)로 하여 좌우 대칭으로 주 매스를 펼쳐고, 양 모서리 부분에 강조되는 부 출입구와 출입구를 보조 매스로 분절한 것은 접근 시각을 고려한 인간 척도(Human Scale)의 적용을 보여주고 있다.

교문의 중앙 기둥의 매스는 비대해 보이지만 보조기둥과 복지관의 보조매스와 조화되어 자연스런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처리된 것 같다.

복지관 파사드(Facade)는 수평띠의 반복 패턴(Pattern), 개구부 크기와 인방 색의 변화로 상·하단 벽을 분리하고, 변형된 페디먼트(Pediment) 장식을 지붕에 도입한 전형적인 삼부론적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내부공간은 가로공간에서 캠퍼스로 관통하는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용도에 따라 지하는 홀형, 1층은 회랑복

도, 2~3층은 편복도형을 채택하여 공적공간(Public Space)의 최소화를 유도한 실용적 구성이 되어 있다.

캠퍼스 주 진입도로는 동서간의 대지 협소로 80m 거리를 확보했으며, 진입부 남북간 도로와 교차하는 교통의 결절점(Node)과 강의동에서 45°로 꺾여 차후 개발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교차되는 결절점 사이의 남측에 예술관이 배치되어 있다.

캠퍼스 중심축의 열악한 상황과 동서 그리고 남북간의 높이 차를 극복하기 위해 예술관의 외부공간은 2층 진입의 주 출입구에 전정(Front Court), 1층 진입 출입구에 지하공간의 채광을 위한 선근 가든(Sunken Garden)의 설치, 학생들의 휴식공간 확보의 목적으로 중정(Inner Court)과 후정(Rear Court)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문 진입시 솔리드(Solid)한 강의동 측면의 압박감은 복지관에서 받았던 이미지를 감소시키고 있다. 교통의 결절점에서 바라본 예술관 매스는 거리에 비례한 폭과 높이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조금 높은 느낌은 들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돌출된 중형 강의실 매스, 교수연구실 매스, 그리고 주 계단실 매스가 중첩되어 조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예술관 파사드의 전반적인 구성원리는 복지관과 유사하지만 건물 모서리 처리에 있어 화강석을 대치한 수평 띠의 반복사용, 지붕 이미지를 간략화한 파라페트의 돌림띠, 2톤(Tone) 색으로 처리한 바닥의 격자형 패턴(Pattern), 독특한 포치(Porch)의 조형, 자연을 도입한 조경 등의 설계 어휘(Design Vocabulary)를 사용하여 표현된 중정에서 그 동안 그가 이룩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내부공간은 용도에 따라 동 단위로 기능을 배분하고 있고, 이들간의 연결에서 중복도, 홀, 편복도의 평면 유형을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다.

작가는 각 영역별 주제에 대해 독특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주제간에 대립과 모순이 발생될 때 전체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구지역 건축계 일각에서는 작가에 대해 새로운 양식을 추구하지 않는 매너리즘(Mannerism)에 젖어 있다고 평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양식의 추구는 새로운 형태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새로운 형태의 추구는 양식이 아닌 유행(Fashion)을 낳게 되는 것이다.

서구의 현대건축이 유입된 지 100년이 끝나가는 시점에 있어서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피상적이며 단명한 유행을 추구하는 경향이 만연되어 있다. 그러나 대구지역의 열악한 건축환경에서 건축가 김무권은 25년의 건축 삶에서 붉은 벽돌과 철근콘크리트를 동반자로 하여 구법, 패턴, 질감, 빛과 색의 구성원리와 표현방법을 구축하여 자신만의 독자적이고 완성된 건축양식을 이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The role of architectural criticism is double-faced: it can either be an attempt to comprehend a work of architecture through a systematic approach, in search of truth, and when successful, provide a broader view on the subject and have an educational function; it can also be rhetorical sophistry, applying relative or superfluous criteria, ultimately an unpleasant exercise of authoritarianism. The latter is sometimes hidden behind the mask of the avant-garde, seeking extreme advancement but whose agenda is yet to be proved, and this is when a counterattack becomes difficult.

Here, I propose a criticism based on a standard and analytic stance, taking in the themes of socio-cultural, economic/technical and environmental/formal aspects, and investigating their interrelations, conflicts and solutions.

The Interpretation of Socio - Cultural Theme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on which the subject of this work was based, we must look into its cultural and social aspects: the former concern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mmanent in the development of the Campus and historical value, and the latter related to the atmosphere formed under the mutual correspondence among the faculty, students and the administratorship.

Taegu, with its isolated geographical condition, underdeveloped politics and economics, and conservativeness of the citizens, was rather late in its acceptance of western architectural styles, which only occurred around the turn of the century when religious buildings were built for missionary ends. It cannot be denied that these western influence, along with the public commercial buildings built by the Japanese, played a major role in establishing an architectural prototype of Taegu.

The Northern Presbyterian Church of the US was engaged in missionary work in the Kyungbuk province, and after W.M. Baird's initial arrival in 1893, the construction of Jaeil Church(the first Christian church) in 1897 and the ensuing year's Jaejungwon(the first westernized medical facility) the followed. The purchase of Dongsan-dong's hills enabled them to establish a mission center, from which various religious, medical and educational activities were executed.

In 1955, with the principle of "towards a country of truth, justice and love," Keimyung Christian School(now Keimyung College) was founded in the low hills of Daemyung-dong. The masterplan of the campus was designed with the environment friendly examples of North America as its model, creating a fair balance between nature and the buildings. The buildings of the Campus, on the other hand, was heavily inspired by the works of Christopher Wren and Inigo Johnes, the 18th century American adaptation of English Georgian styles, which used red bricks and stone as major materials and featured such characteristics as symmetrical facade, pedimental ornaments above the main entrance, and the use of ionic columns or cornice decorations.

Following the addition of Women's University in 1962, the School ultimately developed into present day's Keimyung College of Cultures, specializing in design fields with 150 faculty members, 5500 students in 5

divisions and 20 departments. The continuous growth of the College, however, was bound to meet the problems of limited area and facilities.

As it is placed in the center region of Taegu, expansion of area was out of the question. An alternative plan to move the College was proposed by the administrators, but faced heavy oppositions - the location at the city's center was the very reason the College could hold so much professors with actual field experiences, promote active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and inspire realistic sense and creativity into the students.

The role of the architect, then, would be to mediate the conflicts between the administrators and the users, and instigate productive discussions to yield effective solutions.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se subjects, a reevaluation of architectural styles based on historical cognition, he set to design a campus with an image incorporating human scales and space anticipating future activities.

The Interpretation of Economic /Technical Themes

The elements of technical aspects would be material, system(mechanical, electrical, electronic), and constructive methods(civil engineering and architecture), while that of economics are finance, management and energy.

One of the slogan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is "form follows finance," meaning that economic consideration plays an important, if not absolute, part in the architect's decision-making. It is said that the average construction budget per square meter of Keimyung College's student's center, art center and lecture hall was limited to \$550, and it was left to the architect to distribute the means to each process to achieve his intended architectural goals. In the schemes of land use - solving the problem of the site's height difference which, at its maximum, reaches 20 meters, and optimizing the use of available infrastructure - circulation, and civil engineering, we can notice the architect's efforts to minimize the cost.

The finishing material of the buildings is brick of various colors, manufactured by the region's fine soil, which not only fulfills requirements of maintenance but succeeds in a modernized adaption of the College's choice of style.

As for the building systems, seeking energy saving management, the student's center adopts package heating/cooling system, and the exhausting shafts of each room are exposed to the roof. The basement has a heat-reservation facility, which could function, after additional construction, as a storage of low-cost nighttime electricity.

The structure of reinforced concrete in the student's center used the economical module of 8.0m x 7.2m, whereas that of the art center comprises several modules according to the space's function - office for professors follow 7.2m x 3.6m, lecture rooms 9.0m x 3.6m, and research laboratories 11.4-10.8m x 3.6m. These use of typical modules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costs.

The underground spaces, a natural result of the site's mounding geography, are supplied with sunken gardens that promotes effective lighting and ventilation, which is also a deciding factor for the choice of

sliding windows. It can be concluded that, due to financial constraints, numbers of needful technologies could not be applied, and hence the architect could not perform his full potentials.

The Interpretation of Environmental/Formal Themes

The environmental interpretation requires comprehension on the background of the region and its context, and the type of the site's conditions. Formal aspects, on the other hand, concerns the principles of formal constructions, the meanings implied on the spaces, and the styles of facilities (buildings, landscape, sign and symbols), collectively expressing the image of the Campus.

The Campus is located some 10km outside of the city's center, where this west region, in 1991, was selected as an exemplary production and research district of frontier science and industry. With the given condition of the site, education supporting facility was placed on the north-south axis, surrounded by education facilities on its sides. This division in three parts was then added by buffering zones on the east and west, responding to the traffic noise of the passing road and the need for correspondence with neighboring communities. Differences in level has also affected this partitioning.

The entrance to the Campus, considering the axis of the approaching road and the geography of the site, the slope, and the adjacent districts, was placed on the southern one-third point.

In the proposed masterplan of the architect, dating back to July 1997, the main axis follows the east-west connecting the main gate and the library, creating various spaces between the entrance and the destination along its way, and delivers a unique image of the overall Campus. But in its realization, actual necessity prevailed against the architect's plan - primary construction of the lecture hall was conducted near the main gate, therefore changing the original scheme. It seems that the architect, in order to reconstruct his primary plans, rearranged the locations of the student's center and art center, placing them to the south of the approaching road in the second phase of the redevelopment.

The streets within the Campus were designed in accordance with its context, and the student's center, sited right next to the approaching road, was placed parallel to the road to solve noise problems. The determinant mass of this building consists of the main staircase and the entrance, and has a symmetrical distribution. The articulation of the sub entrances' volumes at each edge is a good sign for considerations on human scale, comprising the approaching vision. The center column of the main gate seems to be a bit overscaled at first sight, but along with the supplementary pillars and attached volume of the welfare center, creates a natural atmosphere of an entering space.

The facade of the welfare center displays a typical trisection - the separation of upper and lower walls by repetitive pattern of horizontal strips, color, and openings of different sizes, and the ornament of transformed pediments on the roof. The composition of interior spaces follow a pragmatic principle, maximizing the area space with the proper choice on the

type of hallways.

The art center has an outdoor space comprising the height difference between the site's north and south, and complements the poor condition of the main axis - the front court is located at the main entrance of the second floor; a sunken garden to ameliorate the conditions of the basement is at the first floor's entrance; and inner and rear courts are reserved as rest area for the students.

The compressed tension at the main entry, created by the solid mass of the lecture hall, operates to diminish the image of the student's hall. When we view the latter building from the nodes of transportation, the aspect ratio makes it look a bit high, but the overall image, including the projected volumes of the lecture rooms, offices and the main stairway, seems to be harmonious.

The regulations on the facade of the art center is similar to that of the student's hall, save for the atrium space with repetitive horizontal lines replacing granites at the angles, the circulating band of the parapet simplifying the image of the roof, the latticed pattern of the floor, and design vocabulary incorporating landscape elements.

The indoor spaces are divided into sectors by each functions, and their connection is made through the skillful application of various types of hallways.

The architect exercises his own interpretations on the subjects of each area - conflicts or contradictions among these subjects are dealt with by his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the whole project.

Some critics of Taegu view his works as a form of mannerism, passive in seeking new styles. But a new style does not mean a new form - new forms only create fashion, not style. After 100 years of western influence, it is unfortunate that a portion of our architecture still goes after a passing fad. It is a relief, however, the Taegu has architect Kim Mu-kwon, who, through the 25 years in this harsh field, has achieved his own autonomous style, that of red bricks and concrete, forming a creative and expressionistic play between structure, pattern, texture, light and color.

